

치매환자 돌봄제공자의 부양부담감(Burden)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프로그램: 체계적 문헌 고찰

김연주*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치매환자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부양 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체계적 고찰을 통해 알아보고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2005년부터 2014년 까지 국내·외 학회지에 게재된 문헌을 RISS, Pubmed를 통해 검색하였다. 2차 분류를 통해 총 9개의 실험연구 문헌이 대상문헌으로 선정되었다.

결과: 선정된 9편의 문헌은 국외 논문이 국내 논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내적타당도는 PEDro score 3.5~7점 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사용된 중재는 교육적 중재가 가장 많았으며, 부양 부담감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도구로는 모두 Zarit Burden Interview(ZBI)를 사용하였다.

결론: 늘어나는 치매 환자와 돌봄 제공자에 비해 치매 환자 돌봄 제공자의 부양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가 아직까지 국내에서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추후에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치매환자 돌봄 제공자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중재효과 실험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돌봄 제공자, 알츠하이머, 체계적 고찰, 치매

I. 서 론

최근 치매환자의 돌봄 제공자에 대한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 이후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구성비의 7%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2010년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인구 중 11%에 도달하였으며, 한국은 다른 국가와 다르게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다(통계청, 2011). 특히 80세 이상에서 치매의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고령화는 치매환자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2008년 보건복지가족

부 조사결과 치매 환자 수는 약 42만 명이고, 2027년에는 100만명, 2050년에는 212만명일 것으로 예상된다(조맹제 등, 2008). 늘어나는 치매환자와 비례하여 돌봄 제공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치매노인은 가족과 사회에 대한 의존 비율이 가장 높은 노인 군이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치료와 돌봄을 필요로 한다(권중돈 등, 2002).

돌봄 제공자들은 치매환자들에게 오랜 시간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요인들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돌봄 제공자가 겪는 어려움은 치매환자의 증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치매환자는 기

교신저자 : 김연주(duswn0909@nate.com)

|| 접수일: 2014. 6. 5 || 심사일: 2014. 6. 15

|| 게재승인일: 2014. 6. 30

역력의 저하와 같은 인지적인 문제와 더불어 심리적 이고 행동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나타낸다(Mahoney, Volicer, & Hurley, 2000; 대한치매학회, 2006). 이러한 문제를 행동심리증상(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BPSD)이라고 한다. 대표 적인 BPSD에는 반복, 착오, 불안, 공격성, 배회, 수면장애, 부적절한 식사행동, 부적절한 성행동이 있다(대한치매학회, 2006). 최영순과 김현리(2004)가 국내치매노인 환자들의 BPSD를 연구한 결과 반복행동, 반복질문, 불안, 무관심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특히, 돌봄 제공자들이 인식한 문제적인 증상으로는 반복질문이 가장 컸으며, 화냄/욕함 항목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돌봄 제공자들은 이러한 정신병리학적 증상 등으로 인해 부양 부담감을 안게 된다(Papastavrou, Kalokerinou, Papacostas, Tsangari, & Sourtzi, 2007). 또한 치매는 BPSD의 심화, 인지적인 문제와 더불어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적, 신경학적 문제가 겹치면서 환자들의 독립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Mahoney, Volicer, & Hurley, 2000). 이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수행 능력(ADL), 수단적 일상생활수행 능력(IADL)에도 예외가 아니며, 독립 정도 역시 돌봄 제공자의 부양 부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김용금, 2001; 대한치매학회, 2006).

돌봄 제공자의 높은 부양부담감은 돌봄 제공자의 삶의 질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Papastavrou, Andreou, Middleton, Papacostas, & Georgiou, 2014). 또한, 치매 환자의 돌봄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돌봄 제공자들의 고립, 사회생활 불가능, 경제적 부담 등 부가적인 문제점도 따라온다(대한치매학회, 2006). 이에 따라 돌봄 제공자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와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까지 외국에서는 이에 따른 돌봄 제공자 중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Martín Carrasco 등(2009)의 연구에서는 심리교육적인 중재(Psychoeducational intervention program)가 돌봄 제공자의 부양 부담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홍콩에서 최근 이루어진 연구는 전화를 통한

심리 교육적 중재가 부양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였다(Kwok et al., 2013). 이러한 심리 교육적 중재 이외에도 정보 제공 및 지지적인 중재(information & support intervention), 심리사회적 중재(psychosocial intervention), 인지행동 집단치료(cognitive-behavioural group therapy), 신체 활동(physical activity) 등이 돌봄 제공자의 부양 부담을 줄여주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rodsky, Green, & Koschera, 2003; Thompson et al., 2007; Aboulafia-Brakha, Suchecki, Gouveia-Paulino, Nitrini, & Ptak, 2014; Orgeta & Miranda-Castillo, 2014).

하지만 국내에서는 돌봄 제공자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효과성 검증에 대한 연구 역시 많이 부족한 상태이며, 중재에 대한 고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치매환자의 돌봄 제공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여러 중재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돌봄 제공자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대상 문헌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치매노인 돌봄 제공자에 관한 중재 프로그램 연구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Web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그 대상 문헌을 수집하였다. 국내문헌은 'RISS'에서, 검색어 '치매, 돌봄 제공자, 부양자, 보호자, 부양부담' 등을 사용하여 2005~2014년 사이의 학술지 논문을 검색하였다.

국외문헌은 'Pubmed'에서, 검색어 'caregiver, dementia, burden'을 사용하여 2005~2014년 사이의 학술지 논문을 검색하였다.

초기 검색결과 중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을 사용하여 대상 문헌을 선정하였다.

1) 포함기준

- (1) 가족이나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 (2) 돌봄 제공자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이 사용된 실험 연구
- (3) 중속변인에 '부양 부담감'이 포함된 연구
- (4) '치매, 알츠하이머'라는 용어가 사용된 연구

2) 제외기준

- (1) 중재의 내용이 외과적인 수술이나 의약품 등 의학적인 처치가 사용된 연구
- (2) 중재의 프로토콜만을 제공한 연구
- (3) 간접적인 방법으로 돌봄 제공자에게 중재가 제공된 연구
(예를 들어, 치매환자의 문제행동을 줄이는 중재를 통해 돌봄 제공자의 부양 부담감의 변화를 관찰한 연구)

2. 분석 방법

RISS를 사용한 국내 문헌의 검색 결과, 총 62편의 문헌이 검색되었다. 문헌 제목과 초록을 통한 1차 분류를 통하여 총 3편의 문헌이 선정되었다. 문헌 전문을 통한 2차 분류를 통해 중재 프로토콜만을 제공한 문헌 1편을 제외한 총 2편의 문헌이 대상문헌으로 선정되었다. Pubmed를 사용한 국외 문헌의 검색 결과, 총 100편의 문헌이 검색되었다. 문헌 제목과 초록을 통한 1차 분류를 통하여 총 13편의 문헌이 선정되었다. 문헌 전문을 통한 2차 분류를 통해 의학적 처치가 사용된 연구 2편, 중재프로토콜만 제공한 연구 1편, 간접적인 중재를 제공한 논문 3편을 제외한 총 7편의 문헌이 대상문헌으로 선정되었다. 국내외 논문의 검색으로 총 9편이 선정되었으며(그림 1), 문헌의 내부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PEDro score를 사용하였다(표 1). 그 분석 내용은 표 3에 제시하였다. 문헌은 타당도가 높은 순으로 나열하였으며, 대상자 목적 중재방법·중재기간/강도·평가 결과 별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에 내용을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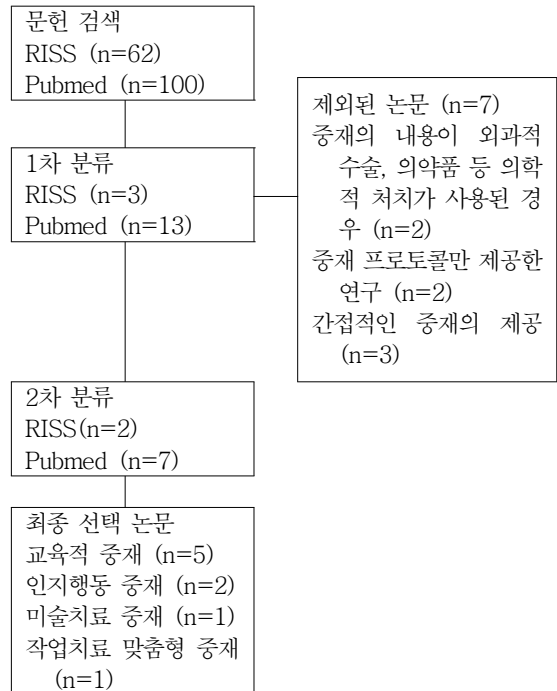


그림 1. 자료 수집 절차

III. 연구 결과

1. 논문의 분류

1) 논문의 국내·외 분류

국외 논문은 Pubmed를 이용하여 검색하였고, 국내 논문은 RISS통해 검색이 이루어졌다. 총 9편의 검색 논문 중, 2편(22.2%)은 국내 논문, 7(77.8%)편은 국외 논문이었다.

2) 사용 중재 별 분류

9편의 문헌 모두 중재를 이용한 실험연구이다. 사용된 중재로는 교육적 중재 5편(1편은 심리사회적 중재와 결합한 심리 교육적 중재), 인지행동 중재 2편, 미술치료 중재 1편, 작업치료 맞춤형 중재 1편이었다.

3) 평가 도구 사용 별 분류

선정된 문헌에서는 23개 종류의 평가도구가 총 37회

사용되었다. 가장 많이 사용된 평가 도구는 Zarit Burden Interview(ZBI)로 대상 문헌의 연구 9편에서 모두 사용되었다. 그 다음으로 Neuropsychiatric Inventory(NPI-Q)가 3회, Satisfaction with life scale(SWLS), the Self Reporting Questionnaire (SRQ-20),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BREF(WHOQOL-BREF), DEMQOL, Perceived stress Scale (PSS) 가 각각 2회씩 사용되었고, 다른 평가도구는 모두 한 번씩 사용되었다.

표 1. PEDro score 10가지 내부 타당도 기준

기준	여부	
	예	아니오
1. 연구 참여자를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무작위로 할당하였나?		
2. 할당은 비밀로 하였나?		
3. 그룹 간에 결과 지표에 대한 기초선이 측정되었나?		
4. 대상자들에게 맹검법을 실시하였나?		
5. 치료사에게 맹검법을 실시하였나?		
6. 평가 담당자에게 맹검법을 실시하였나?		
7. 적어도 하나의 중요한 결과를 측정하였나?(처음 할당된 대상자 수의 85% 이상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8. 계획했던 치료와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9. 그룹 간 결과에 대해 통계적으로 비교하였나?		
10. 결과에 대해 효과 크기 측정과 그 측정에 대한 변수를 제공하였나?		

4) 대상 연구의 근거에 대한 질적 수준

반복적인 읽기와 분석을 통해 EBRSR에서 제시하는 PEDro score 점수를 기준으로 연구의 질을 평가하였다. 8편의 연구에 대한 질적 수준은 아래와 같다(표 3). PEDro score의 범위는 최저 3.5점에서 7점이며, 평균 5.56이었다. 9번 항목에서 통계적 비교와 주관적 비교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 0.5점을 부여하였다.

표 2. 사용 평가 별 분류 (N=23)

사용 평가도구에 대한 분류	사용 빈도
Zarit Burden Interview (ZBI)	8
Neuropsychiatric Inventory-Questionnaire (NPI-Q)	3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2
The Self Reporting Questionnaire (SRQ 20)	2
WHO Quality of Life - BREF (WHOQOL-BREF)	2
DEMQOL	2
Perceived Stress Scale (PSS)	2
Kinetic Family Drawing (KFD)	1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Short Form(CES-D-SF)	1
Rumination	1
Spielberger Trait-Anger Subscale	1
Quality of Life Enjoyment and Satisfaction Questionnaire Short Form (Q-LES-Q-SF)	1
Mindfulness Attention Awareness Scale (MAAS)	1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1
General Health Questionnaire-28 (GHQ-28)	1
Short Form 36 Health Survey Questionnaire (SF-36)	1
The Revised Scale for Caregiving Self-Efficacy	1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HQ-9)	1
Revised-Memory and Behavior Problem Checklist (R-MBPC)	1
Assessment of Motor and Process Skill (AMPS)	1
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	1
Occupational Performance History Interview (OPHI)	1
Modified Interest Checklist	1

IV. 고 찰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4년 까지 최근 10년간 치매환자 돌봄 제공자의 부양부담감 감소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현황을 국내외 문헌을 통하여 알아보고

자 하였다. 이러한 현황조사를 통하여 국내의 치매환자 돌봄 제공자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치매환자 돌봄 제공자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현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9편의 문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양 부담감을 감소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문헌 모두 부양 부담감의 측정을 Zarit Burden Interview 통해 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부양부담감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9편의 문헌 중 5편이 교육적 중재에 관한 실험연구였다. 실제로, Zarit burden interview(ZBI) 결과를 통한 치매 돌봄 제공자에 대한 교육적 중재 메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양 부담감에 감소가 보고되었다(Marim, Silva, Taminato, & Barbosa, 2013). 또한, 치매환자에게만 치료를 적용한 방법보다 더욱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었으며(Thinnes & Padilla, 2011), 교육적 중재에서 제공한 조직적이고 경제적인 전략은 돌봄 제공자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Perry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교육적 중재 이외에 심리사회적 중재, 인지 행동 중재 전략 문헌 또한 포함되었다. 심리사회적 중재의 결과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돌봄 제공자의 여러 정신 건강 관련 결과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부양 부담감의 결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Brodaty, Green, & Koschera, 2003).

하지만 Smits 등(2007)은 여러 중재 전략이 결합된 복합 중재 전략이 치매환자 돌봄 제공자의 부양부담과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한정적인 주제어로 모든 치매환자 돌봄 제공자에 대한 중재프로그램 실험 연구를 검색해내지 못한 것이다. 이는 국내에서 돌봄 제공자가 부양자, 돌봄자 등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 모든 국내 문헌을 검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국내·외 문헌의 검색에

데이터베이스를 각각 하나씩만 사용하여 찾을 수 있는 문헌이 한정적이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단어들을 조합하여 검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좀 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면 좀 더 정확한 중재 프로그램의 현황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최근 10년 간 검색된 치매 환자 돌봄 제공자 관련 중재 프로그램 관련 문헌은 총 9편으로, 국외 연구(77.8%)에 비해 국내연구(22.2%)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사용된 중재 프로그램으로는 교육적 중재, 심리사회적 중재 인지행동, 미술치료 중재, 작업치료 맞춤형 중재가 있었으며 그 중 5편에서 교육적 중재 전략이 사용되었다. 부양부담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모두 Zarit Burden Interview(ZBI)를 사용하였으며, Neuropsychiatric Inventory Questionnaire(NPI-Q)를 사용한 문헌은 3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아직 국내에서는 치매환자 돌봄 제공자 중재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늘어나는 치매환자 수와 그에 다른 돌봄 제공자의 증가에 비해 그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과 프로그램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추후에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치매환자 돌봄 제공자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중재효과 실험연구가 더욱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3. PEDro score를 이용한 연구의 질적 수준 평가

저자, 연도	기준										합계	
	1	2	3	4	5	6	7	8	9	10		
권혁래 등, 2006	No	No	Yes	No	No	No	Yes	Yes	both	No	No	3.5
정원미 등, 2010	No	No	Yes	No	No	No	Yes	Yes	Yes	Yes	No	4
Bormann et al., 2009	No	No	Yes	Yes	No	No	No	Yes	No	No	Yes	4
Lee et al., 2012	No	No	Yes	Yes	No	No	Yes	Yes	Yes	Yes	No	5
Guerra et al., 2011	Yes	No	Yes	Yes	No	No	No	Yes	Yes	Yes	Yes	6
Gavrilova et al., 2009	Yes	No	Yes	Yes	No	No	No	Yes	Yes	Yes	Yes	6
Martin-Carrasco et al., 2009	Yes	No	Yes	Yes	No	No	Yes	Yes	Yes	Yes	No	6
Kwok et al., 2013	Yes	Yes	Yes	Yes	No	No	Yes	Yes	Yes	Yes	No	7
Arango-Lasprilla et al., 2014	Yes	Yes	Yes	Yes	No	No	Yes	Yes	Yes	Yes	No	7

표 4. 돌봄 제공자를 위한 중재 연구 분석

연구	대상자	목적	중재방법	중재강도/ 중재기간	평가	결과
1	치매 돌봄 제공자 5명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매환자 돌봄 제공자의 부담 부담감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	미술치료 (긴장감 완화-친밀감 형성, 자기이해, 현실수용 및 정서)	주 1회 2시간 30분 총 14 세션	1) ZBI 2) KFD	부양부담감의 유의미한 감소가 있음, KDF검사에서 사전 평가와 다르게 치매 환자를 자신의 옆에 그리거나 가족과 함께하는 그림으로 나타냄
2	치매 돌봄 제공자 4명	맞춤형 활동 프로그램이 치매환자의 정신행동증상과 보호자 부담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함	맞춤형 중재 (진단-치료계획 설정, 맞춤형 활동 프로그램, 일반화 위한 교육과 재평가)	주 2회, 총 14세션, 7주	1) NPI-Q 2) R-MBPC 3) ZBI 4) AMPS 5) GDS	중재 전, 후 비교에서 NPI-Q 부담 항목, R-MBPC 반응, ZBI 보호자 부담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
3	치매 돌봄 제공자 16명	중재를 통한 부양부담감의 감소와 삶의 질 향상	인지행동 중재 (집단 반복 명상 중재,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생각의 확인과 대체, 돌봄 제공자 자조활동 향상, 적극적인 듣기의 향상)	주 1회, 8주	1) ZBI 2) PSS 3) CES-D-SF 4) Rumination 5) Spielberger Trait-Anger subscale 6) Q-LES-Q-SF 7) MAAS	부양부담감, 스트레스, 우울, 명상, 삶의 질에서 유의미한 효과
4	치매 돌봄 제공자 30명	거주지 기반 스트레스 관리 훈련이 돌봄 제공자의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취약성에 어떠한 효과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	교육적 중재 (긴장완화 훈련, 인지 재형성, 연속적 모델링, 체계적 문제해결)	주 2시간, 총 7세션, 매일 30분	1) BDI 2) ZBI 3) SWLS	중재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부양부담감, 우울의 감소, 삶의 만족 감소 나타남
5	치매 돌봄 제공자 58명	'돌봄을 위한 돌봄 제공자 돌봄' 중재가 페루에서 실용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보기 위함	교육적 중재 (일반적 교육, 문제 행동에 대한 훈련)	3 세션, 각 30분, 5주	1) ZBI 2) SRQ 20 3) NPI-Q 4) WHOQOL-BREF 5) DEMQOL	대조군은 부양부담감이 다소 증가함과 반대로 중재집단은 부양부담감이 유의미하게 감소

6	치매 돌봄 제공자 53명	‘돌봄을 위한 돌봄 제공자 돕기’ 중재가 러시아에서 실용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보기 위한	교육적 중재(일반적 교육, 문제 행동에 대한 훈련)	3 세션, 각 30분, 5주	1) ZBI 2) SRQ 20 3) NPI-Q 4) WHOQOL-BREF 5) DEMQOL	대조군과 비교하여 중재집단의 부양 부담감이 더 크고 유의하게 감소
7	치매 돌봄 제공자 104명	심리 교육적이고 심리사회적 인 중재가 알츠하이머 노인 돌봄 제공자의 부양 부담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심리교육적, 심리사회적 중재 (홍분과 스트레스 통제 방법, 행동적 문제 다루는 방법, 삶의 만족 높이는 방법 교육-훈련)	1-2주 간격의 8개 세션, 각 90분, 4달	1) ZBI 2) GHQ-28 3) SF-36	부양 부담감이 통제 그룹이 비해 유의미하게 향상, 정신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GHQ-28 점수 또한 중재 그룹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
8	치매 돌봄 제공자 38명	인터넷 기반 지지 중재 서비스가 중국계 캐나다인 치매 돌봄 제공자의 건강에 유용한지 보기 위한	심리교육적 중재 (교육정보 DVD와 심리교육 프로그램)	주 1회, 각 30분, 12세션	1) ZBI 2) Revised Scale for Caregiving 3) self-efficacy scale(SE-OR, SE-RDB, SE-CUT)	통제 집단의 부양부담감이 증가한 데 비해 중재집단의 부양부담감 감소,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 자기 효용성은 SE-OR 항목만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
9	치매 돌봄 제공자 69명	인지행동 중재가 치매 돌봄 제공자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지 연구하기 위한	인지행동 중재 (홍분과 스트레스 통제 방법, 치매환자 문제행동 다룬 방법, 삶의 만족 높이는 방법에 대한 교육)	주1회, 각 2시간내외, 8주	1) PHQ-9 2) ZBI 3) SWLS 4) PSS	중재 후 추적 조사에서 중재집단은 대조군에 비해 높은 삶의 만족도, 낮은 우울-부양부담감을 보임. 스트레스 지수에는 효과 없었음

1: 권혁래 등, 2006, 2: 정원미 등, 2010, 3: Bormann et al., 2009, 4: Lee et al., 2012, 5: Guerra et al., 2011, 6: Gavrilova et al., 2009, 7: Martin-Carrasco et al., 2009, 8: Kwok et al., 2013, 9: Arango-Lasprilla et al., 2014

ZBI: Zarit Burden Interview, NPI-Q: Neuropsychiatric Inventory-Questionnaire, SWL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RQ 20: The Self Reporting Questionnaire, WHOQOL-BREF: WHO Quality of Life - BREF, DEMQOL: Dementia Quality of Life, PSS: Perceived Stress Scale, KFD: Kinetic Family Drawing, CES-D-SF: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Short Form, Q-LES-Q-SF: Quality of Life Enjoyment and Satisfaction Questionnaire Short Form, MAAS: Mindfulness Attention Aware Scale,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GHQ-28: General Health Questionnaire-28, SF-36: 36-Item Short Form Health Survey,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R-MBPC: Revised-Memory and Behavior Problem Checklist, AMPS: Assessment of Motor and Process Skill, GDS: Geriatric Depression Scale, OPHI: Occupational Performance History Interview.

참 고 문 헌

- 권중돈, 고효진, 임송은, 이성희, 장우심, 이유진. (2002). *치매와 가족*, 서울, 한국: 학지사.
- 권혁례, 한규량. (2006). 집단미술치료가 치매환자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3(4), 937-962.
- 김용금. (2001). *치매 노인의 기능상태가 부양자의 우울 및 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석사 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대한치매학회. (2006). *치매 - 임상적 접근*, 서울, 한국: 아카데미아.
- 정원미, 이재신, 황윤정, 윤종철. (2010). 재택 치매 환자의 정신행동증상 관리와 보호자 부담감소를 위한 맞춤형 활동프로그램의 효과.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8(1), 79-93.
- 조맹제, 김기웅, 김명희, 김문두, 김봉조, 김신겸, 김정란. (2008). *치매 노인 유병률 조사*. 서울, 한국: 보건복지가족부.
- 최영순, 김현리 (2004). 돌봄제공자가 인지한 치매노인의 문제행동 연구. *재활간호학회지*, 7(1), 58-67.
- 한국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대전, 한국: 통계청.
- Aboulafia-Brakha, T., Suchecki, D., Gouveia-Paulino, F., Nitrini, R., & Ptak, R. (2014). Cognitive-behavioral group therapy improves a psychophysiological marker of stress in caregivers of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Aging and mental health*, 18(6), 801-808.
- Arango-Lasprilla, J. C., Panyavin, I., Merch n, E. J. H., Perrin, P. B., Arroyo-Anll , E. M., Snipes, D. J., & Arbia, J. (2014). Evaluation of a group cognitive-behavioral dementia caregiver intervention in latin america. *American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 and Other Dementias*.
- Bormann, J., Warren, K. A., Regalbuto, L., Glaser, D., Kelly, A., Schnack, J., & Hinton, L. (2009). A spiritually based caregiver intervention with telephone delivery for family caregivers of veterans with dementia. *Alzheimer's Care Today*, 10(4), 212-220.
- Brodaty, H., Green, A., & Koschera, A. (2003). Meta-Analysis of psychosocial interventions for caregivers of people with dementia.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51(5), 657-664.
- Gavrilova, S. I., Ferri, C. P., Mikhaylova, N., Sokolova, O., Banerjee, S., & Prince, M. (2009). Helping carers to care—the 10/66 dementia research group's randomized control trial of a caregiver intervention in Russia.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4(4), 347-354.
- Guerra, M., Ferri, C. P., Fonseca, M., Banerjee, S., & Prince, M. (2011). Helping carers to care: the 10/66 dementia research group's randomized control trial of a caregiver intervention in Peru. *Revista Brasileira de Psiquiatria*, 33(1), 47-54.
- Kwok, T., Wong, B., Ip, I., Chui, K., Young, D., & Ho, F. (2013). Telephone-delivered psychoeducational intervention for hong Kong Chinese dementia caregivers: a single-blinded randomized controlled trial. *Clinical Interventions in Aging*, 8, 1191-1197.
- Lee, Y. R., Sung, K. T., & Kim, Y. E. (2012). Effects of home-based stress management training on primary caregivers of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in South Korea. *Dementia*, 11(2), 171-179.
- Mahoney, E., Volicer, L., & Hurley, A. (2000). *Management of challenging behaviors in dementia*. Health Professions Press.

- Martín-Carrasco, M., Martín, M. F., Valero, C. P., Millán, P. R., García, C. I., Montalbán, S. R., ... Vilanova, M. B. (2009). Effectiveness of a psychoeducational intervention program in the reduction of caregiver burden in Alzheimer's disease patients' caregivers.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4*(5), 489–499.
- Marim, C. M., Silva, V., Taminato, M., & Barbosa, D. A. (2013). Effectiveness of educational programs on reducing the burden of caregivers of elderly individuals with dementia: a systematic review. *Revista Latino-Americana de Enfermagem, 21*, 267–275.
- Orgeta, V., & Miranda-Castillo, C. (2014). Does physical activity reduce burden in carers of people with dementia? A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9*(8), 771–783.
- Papastavrou, E., Andreou, P., Middleton, N., Papacostas, S., & Georgiou, I. K. (2014). Factors associated with quality of life among family members of patients with dementia in Cyprus.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26*(3), 443–452.
- Papastavrou, E., Kalokerinou, A., Papacostas, S. S., Tsangari, H., & Sourtzi, P. (2007). Caring for a relative with dementia: family caregiver burde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8*(5), 446–457.
- Perry, M., Drašković, I., Lucassen, P., Vernooij-Dassen, M., Van Achterberg, T., & Rikkert, M. O. (2011). Effects of educational interventions on primary dementia care: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6*(1), 1–11.
- Smith, C. H. M., Lange, J., Drees, R., Meiland, F., Vernooij-Dassen, M., & Pot, A. M. (2007). Effects of combined intervention programmes for people with dementia living at home and their caregivers: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2*, 1181–1193.
- Thinnes, A., & Padilla, R. (2011). Effect of educational and supportive strategies on the ability of caregivers of people with dementia to maintain participation in that role. *Th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5*(5), 541–549.
- Thompson, C. A., Spilsbury, K., Hall, J., Birks, Y., Barnes, C., & Adamson, J. (2007). Systematic review of information and support intervention of caregivers of people with dementia. *BMC Geriatrics, 7*(18).

Abstract

A Systematic Review on the Effects of Intervention for Caregivers of People with Dementia to Reduce Their Burden

Kim, Yeon-Ju*, B.H.Sc.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Yonsei University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look at a systematic review on the effects of intervention for caregivers of people with dementia to reducing burden. Through this study, we have to analysis the studies.

Methods : We systematically examined papers published in journal from 2005 to 2014, using RISS, Pubmed, 9 studies were included in the analyses.

Results : Selected 9 studies were Pedro score from 3,5 to 7. The most using intervention is educational intervention and the Zarit Burden Interview(ZBI) was used in all studies for measured the degree of burden of caregivers.

Conclusion : The studeis about interventions for caregivers to reduce their burden are limited in Korea. In the future,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tudies for intervention for caregivers of people with dementia must be activate.

Key words : Alzheimer's disease, Caregivers, Dementia, Systematic review